

申欽의 散文과 文藝意識*

全 在 康**

• 目 次 •

| | |
|----------------|-----------------------|
| I. 序 論 | IV. 散文과 文藝意識의 文學史的 意義 |
| II. 散文의 存在樣相 | V. 結 論 |
| III. 文藝 意識의 特性 | ※ 參考文獻 |

I. 序 論

申欽 문학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批評論, 時調, 樂府와 詞賦 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¹⁾ 그에 대한 관심은 생애라는 문학 주변적 연구와 詩라는 문학 부분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신흠을 흔히 漢文 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나 그의 散文²⁾에 대한 연구는 정작 소홀한 형편이다. 이에 본고는 그의 산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散文을 집필한 동기나 목적을 추적하면서 그가 남긴 散文의 종류와 존재 양상을 밝히고, 다음은 이런 散文의 存在 樣相의 바탕을 이루는 신흠의 文藝 意識을 논하고, 그 兩者의 文學史的 意義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散文의 存在 樣相

신흠이 남긴 散文은 갈래가 매우 다양하고 작품 수도 많다.³⁾ 신흠은 이들 작품을 각기 일정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 집필했다. 40여 종의 다양한 갈래로 된 신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글날 기념 국어국문학 학회 연합회 학술회의에 발표했던 글임.

** 慶北大學校 講師

1) 全在康, “申欽 詩의 構造와 批評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國文學 博士學位 論文, 1992, 3~4쪽.

2) 여기서 散文이라고 한 갈래는 文, 雜言, 文章 등의 뜻과 통하는 말이다. 韻文에 대한 散文, 詩에 대한 文이라는 두 말 가운데 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서 散文이라는 용어는 서양 문학의 3분법에서는 포괄할 수 없는 교술적인 글, 일반 사무적인 글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따라서 文藝意識이라는 말 역시 技藝로서의 散文 전체에 대한 신흠의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는 오늘날 주로 문제삼는 협의의 문예(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신흠이 남긴 散文의 갈래는 40여 종에 가까우며 전체 작품은 총 450여 편에 이른다. 이 가운데 序25篇, 記11篇, 墓誌銘 등 墓와 관련된 작품 60篇, 疏劄36篇, 書牘35篇, 題跋49篇

흠의 散文은 작자의 두드러진 의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의 散文 存在 樣相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작품으로 이루어진 散文 갈래들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 보면 그가 散文을 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신흠은 應制錄書 14篇과 咨奏 14篇, 表箋 16篇 등의 작품을 남겼는데 이들 작품은 모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집필했다. 예를 들면, 명나라 장수를 우리의 필요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설득을 위한 간절한 뜻의 표현이 가능한 편지 형식의 글을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다.

- (1) 조선국 배신 의정부 영의정 모는 삼가 백번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흠차 제독부전에 글을 올립니다.⁴⁾
- (2) 서늘한 바람이 더위를 전송하고 차가운 기운이 잠깐 도는 이 때에 오랫동안 균중의 수고로움 속에서 건강이 좋으십니까? 산천이 막혀 안부를 자주 살피지 못하므로 사모하는 마음이 깊고, 동시에 늘 송구합니다.⁵⁾

위 글 (1)은 영의정을 대신하여 신흠이 이여송에게 쓴 편지이다. 황제의 명령을 띠고 왔다고는 하지만 군사 몇 만을 거느리고 온 일개 장수에게 영의정이 백번 절을 하고 울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신흠 개인의 체통이나 국가의 위신을 내던진 처사라고 할 수 있다. (2)는 선조를 대신해서 쓴 글인데 임금이 장수를 쳐다 보고 사모하고, 마음에 두렵고 조심된다는 말을 써서 굴욕적이기조차 한 문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서두의 이런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에서 서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신흠은 (1)의 글을 통해 백성의 고초를 생각하여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과 군사를 신속히 움직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2)에서도 역시 빨리 공격하여 전공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결국 전쟁을 치를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支援軍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위 글의 의도였다. 여기서 국가의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 지위나 국가의 체통이라는 명분을 돌보지 않는 申欽의 유연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극도의 겸양을 통하여, 또한 중국인들이 내세우는 華夷論을 끌어오면서까지 오랑캐를 무찔러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신흠은 支援軍을 움직이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散文 敍述은 咨奏의 글에서도 이어졌다. 그리고 表箋의 글에서는 戰後 중국이 맞이한 일정한 吉事에 賀禮하는 뜻을 나타냈다. 여기에는 冕服을 보충해 준 은혜에 감사하거나 옛

咨奏14篇, 雜著47篇, 說12篇 등 다수의 작품으로 된 갈래가 있고, 한두 작품으로 된 갈래가 있다.

4) 朝鮮國陪臣 議政府 領議政 某等 謹百拜泣血 呈稟于欽差提督府臺前(『象村先生文集』 卷38. “上李提督書”) (이하 “『象村先生文集』 卷38”은 “『象村』38”으로 줄여 씀)

5) 貧涼餓暑 金氣乍冷 久勞戎行 起居如宜 山川隔間 候閱稽闊 載深臆想 恒用凜惕(『象村』38. “(與李提督如松書)又”)

은덕을 잊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일정한 절기와 경사일, 작은 은혜에 대한 이러한 감사와 찬미는 事大交隣의 조선 전통적 외교 방식을 그대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손상된 중국의 물질적 피해를 외교로 무마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공식적 기록과 함께 신흠은 또 개인의 일상 생활이나 거기서 발생하는 정서를 散文으로 서술했다. 일상 생활의 면모를 그리기에 알맞은 말이니 語, 錄, 書牘 등의 형식을 택했다. 여기서 신흠이 말한 言, 錄은 특별한 갈래의 명칭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는다. 기록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 (3)어쩌다 심회라도 일어날 때면 어떤 것이든 모두 붓을 휘둘러 종이에 적곤 하였는데, 이것은 이른바 독백이라고나 불러야 좋을 것이다.⁶⁾
 (4)史書を 깔고 앉고 經典을 베개로 삼으니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모두 문자 속에 들어 있고, 산빛을 보고 물소리를 들으니 출입하고 기거하는 동작이 자연 어부나 나뭇꾼과 같다.⁷⁾

위 글은 다 같이 생활의 일면을 기록한 것인데 (3)은 서술의 태도를 직접 밝힌 것이고 (4)는 유배 생활에서 갖게 된 심정을 술회한 것이다. 다른 이유와 함께 자유로운 생활과 그 정서를 기록하기 위하여 신흠은 한문의 기존 갈래가 아닌 言, 語, 錄 등의 자유로운 형식의 散文을 창작했다. 그러나 많은 語, 言, 錄 등의 작품 수에 비하여 실제 신흠이 자기의 정서를 일부 散文에서만 제한적으로 드러낸 것은 散文이 주관적 세계를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인식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다양한 정서를 여러 시조와 수 많은 한시⁸⁾로 대부분 나타낸 그 문학적인 업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文藝와 관계된 신흠의 散文 가운데에는 자기 삶의 현실 자체를 기술하기보다는 문학을 논리적으로 거론한 비평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序, 跋, 軼談 등의 여러 글을 통하여 文藝의 가치와 실제 문학 작품의 수준 문제를 논의했다.

신흠은 실천적 도덕과 실무적 일처리 능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散文을 집필했다. 인물의 일생을 알리고 찬양하는 碑銘類, 傳, 篇 등의 글에서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 (5)비록 인에 도탑고, 의에 힘쓰고, 신에 뜻 세우기를 태징 같이 한 사람을 다시 보고자 한들 되겠는가.⁹⁾
 (6)공은 이 때 죄인의 몸으로 갑자기 교지를 받고 기용되었는데, 계획하고 조

6) 或有蘊積 一皆付諸寸管 書之尺牘 茲所謂獨言也(『象村』49, “山中獨言”)

7) 藉史枕經 喜怒哀樂 無非文字 看山聽水 出入起居 自同漁樵(『象村』30, “謫中致語”)

8) 신흠은 30여 수의 시조와 2천여 수의 한시 작품을 남겼다.

9) 雖欲更見 敦乎仁 力於義 立乎信 如台微者 得乎(『象村』25, “李永興墓誌銘”)

치하는 것이 마치 무엇을 품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내놓는 것처럼 막힘이 없었다.¹⁰⁾

위의 (5)는 仁, 義, 信이라는 유교의 덕목을, (6)에서는 사무처리의 능력을 각각 말했다. 유교의 덕목을 말한 것은 그 인물이 실천에 뛰어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윤리를 사변적으로 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계속 내세운 덕목 가운데 또 하나가 공무 처리의 능력이다. 이것은 실천적 윤리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 백성을 태평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어진 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덕목의 실천을 위하여 신흠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箴, 銘 등의 글을 써서 몸 가까이 두어 스스로 경계를 삼기도 했다.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신흠은 또 다른 散文을 저작했다. 신흠은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기존 학문이 보여 준 현실 대응 방식이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그 때문에 학문적 논리를 새로이 수립하고, 여기에 의거, 현실 문제에 대응해 나가려 했다. 신흠은 “孔門의 사람 가르침은 더욱 비근하고 낮으나 사람이 日用하는 데에 절실하여 배고픔에 밥을 기다리고, 추위에 반드시 옷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반드시 그 효과를 얻는다”¹¹⁾고 지적하여 사변적 理氣의 논쟁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런 기본 입장에서 신흠은 原始 儒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자 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이단시되던 양명학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개방적 태도를 과감하게 나타냈다. 그리고 불교, 도교 등에 대하여도 긍정적 자세를 보였다.¹²⁾ 이런 개방적 자세는 원시 유학의 철학적 근거가 되는 『易經』을 象數學的으로 理解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는 이를 통하여 당대 학문이 가졌던 관념적, 사변적, 교조적 한계에 도전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고집함으로써 초래된 체제의 완고성, 고립성이 더 이상 국가를 보전하는 데에 소용 없다는 사실을 신흠은 깨달았다. 그래서 신흠은 당시에 일반화되어 있던 『易經』의 義理學的 解釋을 제쳐두고 象數學的 理解¹³⁾에 도달했다. 여기서 존재의 일반을 이루는 氣(數)와 그 氣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형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존재 일반의 하나인 다른 思想에서까지 그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었다. 사상의 재해석 혹은 확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신흠은 체계적인 긴 散文을 저술했다. 그 결과 새로운 논리를 수립할 수 있

10) 公以觀履屢迹 猝然承尺一起 猷爲庄措有若取諸懷中 而發之者然(『象村』29, “梧陰尹相國碑陰記”)

11) 孔門敎人 愈近愈下 而切於人之日用 如饑之必待食 寒之必待衣 必得其效(『象村』53, “求正錄中”)

12) 全在康, “申欽 詩의 構造와 批評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2. 8. 55~65쪽.

13) 『易經』研究 흐름에는 義理學과 象數學이라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의리학은 『역경』속에 倫理와 哲學을 발견해 내고자 했고, 상수학은 現像과 數를 탐구하고, 論理的 數學的 體系를 수립하고자 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朱子와 退溪의 『易經』 思想 研究(金益洙, 建國大, 哲學 博士 論文, 1987, 16~22쪽)”와 『주역연구』(슈츠스키 저, 오진탁 역, 한겨레, 1988, 111쪽)를 參照.

게 되었다. 사상에 대한 그의 입장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곳도 있지만, 「求正錄上, 中, 下」, 「先天窺管」 등의 논문에 주로 그의 이념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7) 사람이면서 理를 모르면 天命의 性이 없이지고 사람이면서 數를 모르면 하늘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쓰는 자가 있게 된다.¹⁴⁾

이 글은 “先天窺管”의 결론 부분인데 신흘은 여기에서 「역경」의 象數學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理에 치우침으로써 현실의 객관적 변화를 알지 못하는 한계와 그 문제점을 들어냈다.

다음으로 신흘은 역사에 대한 辨正과 事實의 기록을 위하여 일정한 散文을 지었다. 여기에는 錄, 彙言, 志 등의 散文이 대표적 예가 된다.

(8) 목은 같은 이들이 오히려 일맥을 유지하여 公議가 아주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道傳, 紹宗의 무리들이 왕씨가 아니라는 자는 신이 되고, 왕씨라고 하는 자는 역적이 된다는 말을 만들어서 조정에 떠들어 대어 인심을 현혹시켜 드디어 선비를 魚肉을 만들고, 남의 입을 막아 놓았으나……인심을 다 현혹시키지는 못하고 사람의 입을 다 막아 놓지는 못해서……董狐같은 직필이 있었으니 이는 어찌 돌이 누르면 竹筍이 비스듬히 온다는 것과 같지 않으리요.¹⁵⁾

(9) 적병이 처음 부산에 이르렀을 때 척후병이 대략 4백여 척이 왔다고 보고했다. 적이 부산을 함락하고 연이어 연변의 진지와 郡을 함락함에 미쳐서는 질풍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다시 정확히 볼 수가 없었다.……변방의 장수가 깨닫지 못하고 다만 처음의 보고에 근거하여 적의 배가 4백여 척이라고 했다.¹⁶⁾

신흘은 위의 (8)에서는 고려의 역사에 대한 변정을 피하고 있다. 신흘은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 고려의 마지막 두 임금인 왕씨가 아닌 辛씨라고 한 것은 역사의 날조라는 주장을 폈다. (9)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당대인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다. (8)이 과거 역사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9)는 신흘 당시의 잘못된 현실을 들어내어 알리고자 한 것이다. 적의 침입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지 못한 잘못과 이런 잘못을 의심하지 않고 반복하여 전쟁을 패전으로 이끈 여러 장수의 잘못을 기록했다. 역사에 대한 개방된 논의를 위해서 錄이라는 자유로운 형식의 散文을 집필했고 당시 현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하여 객관의 서술에 어울리는 志라는

14) 人而不知理 則天命之性亡矣 人而不知數 則有違天而自用者矣(『象村』55, “先天窺管”)

15) 如牧隱儕類 尙存一脈公議未泯 故其時 道傳紹宗等輩 倡爲非王氏者爲忠 謂王氏者爲逆之論 簞鼓朝廷 眩惑人心 遂得以魚肉土流 箝制口舌……然而人心未盡眩人口未盡箝 草野之間有董狐之筆 豈非石壓筍斜出者也(『大東野乘』第25卷, “象村雜錄” 「고전국역총서」 54~55쪽, 254~255쪽.)

16) 賊兵初至釜山 候吏報稱大約四百餘艘 及賊陷釜山 連陷沿邊鎮堡列郡 望風奔潰 無復有瞭望……邊將不覺 只據初報 常謂賊艘只四百(『象村』 56, “諸將士難初陷敗志”)

散文 갈래를 선택하고 집필했다. 사실에 대한 것일지라도 사무적인 자료인 경우에는 사실을 낱낱이 나열하기만 하는 방식으로 散文을 썼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신희은 그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散文을 저술했는데 그 구체적 갈래는 40여 종이 되지만 실상 두드러진 저술 동기를 묶어서 볼 때 다섯 가지 산문의 존재양상을 보여 주었다. 당대에 시급한 외교 문제, 자기 삶의 문학적인 표현 및 문학에 대한 비평, 실천적 윤리의 확인과 새로운 가치의 추구, 기존 학문의 한계를 지적하고 당대에 걸맞은 새로운 논리의 모색, 과거 역사에 대한 변정과 당대 역사의 기록 등이 그의 산문 서술에 나타난 의도였다. 이런 의도에 따라 창작된 散文은 각기 의도에 걸맞는 양식과 표현의 특성을 얻었다. 외교의 散文은 의도적 수식과 찬양의 書, 表, 箋, 윤리의 散文은 중후한 문식의 墓誌銘, 篇, 傳, 역사의 散文은 전고인용과 논변, 기록의 言, 錄, 志, 학문과 문학의 散文은 개방적, 논리적인 錄, 說, 篇 등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이러한 散文의 존재 양상이 문예에 대한 그의 어떤 의식을 말해 주는 것인지를 검토할 차례이다.

III. 文藝意識의 特性

앞 장에서 살핀 散文의 존재 양상은 작자의 의도가 구체적 散文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몇 가지의 散文 존재 양상은 근본적으로는 작자가 처했던 시대의 현실과 이상에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각 문인으로서 신희이 散文을 통하여 당대 현실의 요구를 일정하게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나아가야 할 이상을 끊임없이 모색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다룬 散文 집필의 다섯 가지 동기 가운데 외교와 윤리, 역사 등의 문제는 현실과 상대적으로 깊은 관련을 갖는 과제이고, 문학과 학문의 문제는 이상 실현의 방법인 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¹⁷⁾

먼저 신희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散文과

17) 일반적으로 외교, 윤리, 역사, 문학, 학문은 現實과 道에 다 같이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교, 윤리, 역사를 現實에, 문학과 학문을 道에 연관시킨 것은 신희의 散文이 갖는 성격과 관계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道와 現實이라는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그 散文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비중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다. 외교와 관계된 散文은 시급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윤리는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고, 규제한다는 점에서, 역사는 과거의 현실이면서 당대 현실을 일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각각 현실과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문학 역시 현실의 반영이라 현실적인 성격은 갖지만, 신희이 남긴 散文은 자기 삶의 체험이나 정서를 오늘날 소위 문학적으로 보여 주기보다는 문학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주로 했다는 점에서 道에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학문적 체계와 관계된 散文은 기존의 이념을 새롭게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이념을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道와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

어떻게 연관시켰는가를 보고자 한다. 현실과의 관계에서 散文의 기능과 가치를 어떻게 인식했는가가 그 文藝意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1) 저희 나라의 급박한 상황과 위태로운 형세는 새의 알을 쌓아둔 것보다 더합니다.¹⁸⁾
- (2) 옛적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 법이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원칙이 있어서 백성들이……, 국가의 법이 무너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원칙이 허물어지자 백성의 조세와 부역이 안 붙는 데가 없다.¹⁹⁾
- (3) 「고려사」에서 포편을 가한 역사에 대한 평가는 모두 믿을 수가 없는데, 말년의 사적은 더더욱 잘못 기록되어 있다.²⁰⁾

맨 앞의 (1)은 신흘이 윤근수, 최립 등과 연명으로 明軍의 철수를 반대하는 외교적 서찰이다. 신흘은 여기서 당시 전란의 상황을 누란의 위기로 보아 조속히 극복해야 할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했다. (2)는 현실의 여러 국면의 시비를 따져 논변한 글²¹⁾ 가운데 하나인데 백성을 옹호하고 벼슬아치를 나무라는 내용이다. 현실을 이루는 성원 가운데 백성을 긍정하고 불합리한 지배자를 부정적 존재로 인식했다. (3)은 우리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논의한 여러 글 중의 하나인데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의 내용을 비판한 부분이다. 신흘보다 앞 시대이기는 하지만 같은 조선의 집권층이 서술한 역사를 비판한 것은 그의 합리적 자세에 의거한 것이었다. 신흘은 그의 산문에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양면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과거현실을 긍정적인 것으로, 침탈당한 당대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당대 현실 안에서는 현실을 이루는 지배층을 부정적, 백성을 긍정적인 존재로 각각 인식했다. 이러한 양면적 인식은 그의 시 세계가 보여 주는 현실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²²⁾ 신흘에게 이러한 양면적 인식이 분열된 채로 내면화,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신흘은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 현실로 전환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적극적 진출과 참여의 면모를 보이는 그 생애와 진퇴의 상황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수 많은 시와 산문을 창작한 사실이 그 근거가 된다. 부정, 긍정의 현실을 기록한 데에는 산문이 갖는 여러 기능과 그 가치에 대한 신흘의 의식과 자각이 깔려 있다.

18) 夫小邦岌岌之狀 危殆之形 不啻累卵(『象村』 38, “上廣榮都御史李化龍書”)

19) 古者制國有典 制民有經 民之出財賦 供租稅有恒數矣 自夫國典壞 民經毀 民之租賦 無乎不出(『象村』 40, “民心篇”)

20) 麗史所予奪 皆未可信 末年事亦尤乖謬(『象村』 45, “彙言5”)

21) 신흘은 “民心篇” 외에도 “治難篇”, “權臣篇”, “士習篇”, “財用篇”, “用兵篇”, “立本篇”, “慎分篇”, “去敵篇”, “覈僞篇” 등의 散文을 남기고 있다.

22) 全在康. 앞의 論文. 135~145쪽.

- (4) 세 아들이 모두 문학으로 진출하여 계속해서 문과급제의 영광을 차지…….²³⁾
 단지 부모를 일찍 여의어 집안이 영락하게 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로 나아가 선조의 업을 잇게 된 것이다.²⁴⁾
- (5) 훈렬은 종묘사직에 있고, 정사는 민생에 있으며, 문학은 후세에 있으니…….²⁵⁾
 지극한 정은 글이 필요없고 지극한 슬픔은 말이 소용없는 법이나 후세의 자손이 선대의 덕을 살펴 보려고 한다면 또한 이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²⁶⁾

신흠은 (4)에서 문(학)이 갖는 과거 진출의 기능을 말했다. 신흠은 散文이 영광스럽지 않은 현실을 영광스러운 현실로, 영락한 부정적 현실을 선조의 업을 이을 수 있는 긍정적 현실로 바꾸어 주는 힘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다. 신흠은 외교적 散文을 통하여 역시 침탈의 부정적 현실을 국가 종사를 이을 수 있는 긍정적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많은 散文을 집필했다. (5)에서는 지극한 정, 지극한 슬픔에 말과 글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문을 썼는데 이것은 현장의 절실한 상황도 문을 빌려야 오래, 널리 전할 수 있다는 신흠의 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즉 散文이 情을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 길이 전할 수 있다는 신흠의 문예 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신흠은 현실의 부정·긍정적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散文이 적극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또 散文은 이런 극복의 典範을 당대를 넘어 후세에까지 전달하고 파급시키는 초월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인식했다.

다음으로 문학과 학문을 다룬 散文에 나타난 문예 의식을 보고자 한다. 먼저 문학과 학문을 논의한 散文에서 理想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파악한 도와 문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 (6) 人心은 얼굴과 같이 사람마다 다르고, 詩文은 그 인심으로부터 발현한 것이니 또 어찌 같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사람은 唐을 책망해 말하기를 어찌 漢이 아닌가 하고……山水에 비유할 수 있다. 산에는 五岳이 있는데 그 모양과 바탕이 다르고 물은 九河가 있는데 그 갈래와 근원이 다르다. 그러나 (그 산에 있어서) 높고 험한 것은 같으며, (그 강에 있어서) 흐르고 불어나는 것은 같다.²⁷⁾
- (7) 무릇 이는 만유의 조이나 능히 수를 떠나 홀로 퍼질 수 없고 수는 구경이나 능히 이를 떠나 홀로 들어날 수 없다.²⁸⁾

23) 三子皆以文學進 繼繼科第……(『象村』25, “大司憲朴松夫人林氏合葬墓誌銘”)

24) 余本少宦情 只錄早喪父母 門戶凋零 不得不拔策決科 以紹先業(『象村』49, “山中獨言”)

25) 勳烈在宗社 政事在民生 文學在後世 誌而無愧者 非公也耶(『象村』24, “翰忠翼謨修紀光國功臣崇政大夫益城君洪公墓誌銘并序”)

26) 至情無文 至哀無辭 來世雲仍 其欲考于世德 尚有徵于茲(『象村』26, “先府君墓表”)

27) 人心不同如面 詩文由乎人心而發 又惡同哉 而今世之人 責唐曰 胡不漢也……譬之於山水 山有五岳 而形質俱殊 水有九河 而派原各異 然其嶺峯巍峨同也 淪連澎湃同也(『象村』51, “求正錄上”)

28) 夫理爲萬有之祖 而不能離數獨伸 數爲萬物之究 而不能離理獨顯(『象村』41, “彙言1”)

천하의 도는 하나일 뿐이다. 이도 하나일 뿐이고 기도 하나일 뿐이다.²⁹⁾

신흠은 (6)에서 개성과 보편성이라는 문학의 특성을 말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공통되고 생명있게 해주는 문학의 항구성, 보편성을 중요시했다. 동시에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개성 역시 중시했다. 그래서 한 시대나 지역의 문학이 갖는 개성을 절대시하거나 고정 불변한 것으로 파악하는 그릇된 인식을 비판했다. 신흠은 시는 청기라고 하는 본색을 가지면서 동시에 소리없는 소리와 색깔없는 색을 얻어야 한다³⁰⁾고 말했다. 이는 시가 대상과의 교감에서 생기는 자연스런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런 정서를 얻어짜서 조작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야 좋은 시가 된다는 지적을 동시에 한 것이다. 비평론에서 신흠은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이룬 華而實, 實而華의 상태를 도가 잘 실현된 문학의 이상적 상태로 보았다.³¹⁾

(7)에서는 존재의 본질인 道에 대하여 말했다. 현실 존재의 이상적인 상태는 현실이 그 본질인 道와 일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道에 대하여 신흠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성리학의 主理的인 입장은 일방적으로 理가 道의 핵심이라고 하는 편향된 견해를 고집했지만, 신흠은 理氣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氣(數)와 理가 서로를 포용함으로써 도가 이루어지고 존재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신흠은 주리적 입장보다 상대적으로 기를 중시하여 객관 세계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졌다. 그래서 道는 유교 사상밖에 없다는 고집을 세우지 않을 수 있었다. 신흠은 儒者는 미발한 가운데이며, 老者는 기의 어머니, 禪者는 본래면목이라는 지적을 했다.³²⁾ 이것은 유불도 사상의 핵심을 지적한 말이다. 그런데 이런 핵심 사상이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 모두 마음을 말한 것인데 儒者가 기르는 것은 그 공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는 것이고, 老者가 기르는 것은 그 이롭이 세상에 살며 精을 보존하는 것이고 禪者가 기르는 것은 그 궁극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니 대개 公과 私의 분간에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³³⁾라고 했기 때문이다. 天下의 道는 하나라고 한 입장(예문7)에서 신흠은 儒佛道 思想의 본질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두 心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 쓰임이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신흠은 시대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유학을 실천적, 실용적 학문으로 이해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조

29) 天下之道一而已 理一而已 氣·而已(『象村』42, “策言2”)

30) 古人云 乾坤有清氣 散入詩人脾 清是詩之本色……詩必得無聲之聲 無色之色(『象村』58, “晴窓軟談 中”)

31) 全在康, 앞의 論文, 146~154쪽.

32) 儒者曰未發之中 老者口氣之母 禪者曰本來面目(『象村』51, “求正錄 上”)

33) 皆言心也 而儒者之養也 其功至於位天地育萬物 老者之養也 其成至於駐世保精 禪者之養也 其極歸於脫離生死 蓋由於公私之分爾(『象村』52, “求正錄 上”)

선 시대 동안 이단으로 지목된 도, 불, 양명 등의 사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변적이고 이론적이지만 한 주자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양명학을 통해서도 실천력을, 도불학을 통해서도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회복하고자 했다.³⁴⁾ 이에 신희의 散文에 있어서의 道는 존재 일반의 본질인 동시에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삶을 잘 보호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치롭게 실현하는 길 혹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과 학문을 기록한 신희의 散文은 편향된 道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데에 기여했다. 散文을 통한 길고 다양한 논의는 고정된 하나의 이론을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散文의 서술을 통하여 기존의 고정된 이론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어 문학과 학문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을 신희는 넘어서고자 했다. 이는 신희가 散文의 창작을 통하여 창조적 사유를 강화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다양한 문학 현상과 사유 방식을 각기 그 성격에 맞는 散文으로 논의함으로써 문학과 학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었다. 자연스런 결과로서 그는 앞에서 밝힌 현실적, 합리적, 이상적인 새로운 도를 제시하였다.

모색하여 얻은 도와의 관계에서 신희는 散文이 道를 드러내고 가치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이 구슬을 꿰듯이 문이 도를 꿰어야³⁵⁾ 가치로운 보배를 만들고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三才와 萬物의 道까지 散文을 빌려야 빛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신희는 散文이 모든 존재와 그 존재에서 파악한 道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신희는 道와 文을 다 같이 중시하는 貫道論的 文藝意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현실과 도라는 중대한 두 과제에 대하여 散文이 갖는 기능, 가치를 신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논의해 보았다. 요컨대 현실과의 관계에서 散文은 부정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散文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散文은 파악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道와의 관계에서는 散文이 갖는 두 가지의 가치를 말했다. 시대에 맞는 道를 찾는 데에 있어서 散文은 창조적 사유를 돕는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렇게 얻은 도와 모든 존재의 가치를 후세에 남기고 들어내는 데에 散文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現實과 道 兩者와 散文의 관계를 동시에 보면 신희의 문예 의식이 더욱 분명해진다. 散文은 現實과 道에 대한 창조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힘, 양자의 그릇된 국면을 시정하는 힘, 파악한 도와 현실의 본

34) 全在康, 앞의 論文, 25~65쪽.

35) 文章小技也 於道無當焉 而贊文者 目以貫道之器何也 蓋雖有至道 不能獨宣 假諸文而傳 然則不可謂不相須也(『象村』58, “晴窓軟談 上”)

古稱文者 貫道之器 照燭三才 輝麗萬彙 人亦有言 不朽盛事(『象村』27, “海平府院君月汀尹公 神道碑銘并序”)

질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하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신희은 존재를 부정하는 강고한 개인적, 집단적 도전의 현실에 대응하고자 散文을 통하여 합리적 道를 모색했다. 현실을 인식의 근거로 삼아 가장 이상적인 道를 찾아냄으로써 당대는 물론 후세의 부정적 현실까지도 예방하고자 했다. 즉 신희은 당대 현실적 현실을 이상적 현실로 전환시키기는 데에 필요한 道를 散文을 통해서 찾고 전하고자 하여 貫道論的 文藝意識을 견지했다.

IV. 散文과 文藝意識의 文學史的 意義

앞의 2장에서 살핀 산문의 특징적 존재양상이 文學史的으로 어떤 意味를 갖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런 특징적 산문을 남긴 신희이 가졌던 文藝意識이 궁극적으로 어떤 意義를 갖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신희 개인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면서 당대 관인문학, 나아가서는 당대 문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신희이 남긴 산문의 다섯 가지 존재양상은 신희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한다. 산문이 보여준 외교, 윤리, 역사, 사상, 문학 등의 다양한 세계는 官人, 學者, 文人 등 신희의 복합적 면모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문의 다양한 존재양상은 신희의 前代나 그 同時代, 그리고 그 다음 世代와의 관계에서 독특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먼저 그 선대의 인물과 대비하려고 하면 선대의 인물 가운데 관각문인으로 일찌기 文名을 날렸던 徐居正, 초기 嶺南 士林으로 알려진 金宗直, 성리학의 이념을 정립한 李珣의 경우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신희이 이들과는 일정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서거정은 관각문인이라는 점에서, 김종적과 이율곡은 사림의 학자라는 점에서 신희와 대비될 수 있다. 서거정은 序, 跋, 記, 碑銘, 등의 단편적인 산문과 공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과 ‘東文選’, ‘東國通鑑’ 등의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東人詩話’라는 시평집을 남겼다.³⁶⁾ 그리고, 金宗直은 士林이면서도 序, 記, 題後, 冊文, 碑銘 등 얼마간의 단편적인 글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³⁷⁾ 신희 전대의 다른 인물로 율곡을 반드시 거론해야하는 것은 신희이 학문적으로 율곡의 학통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³⁸⁾ 율곡은 詩와 散文 가운데 산문에 치중했다. 율곡의 글을 보면 書, 序, 跋, 記, 說 등의 산문이 있기는 하나 이들 단편적인 글보다는 ‘聖學輯要’, ‘擊蒙要訣’과 같은 성리학이나 교육에 관한 이론적 체계적인

36) 徐居正, 『四佳集』(韓國文集叢刊 11, 1988) 參照.

37) 金宗直, 『佔畢齋集』(韓國文集叢刊 12, 1988) 參照.

38) 全在康, “앞의 論文” 25~65쪽.

산문이 저술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유학 사상의 수용과 새로운 체계화에 앞장섰던 사림파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일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희의 산문이 보여준 특징은 관인과 사림의 계통을 동시에 이으면서도 이를 일정하게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산문 저술을 남겼다는 점에서 관각 문인인 서거정을 닮은 면이 있지만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그와는 달리했다. 그리고 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산문은 남겼으면서도 율곡과 같은 기존 사림의 사상적 입장을 단순히 따르지 않았다. 결국 신희는 양쪽에 관계되는 두 종류의 산문을 모두 저술하여 그 先代 詞章派와 士林派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신희는 道와 文의 일정한 균형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당대의 현실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즉 신희의 산문은 그 앞 시대와의 관계에서 詞章과 道學으로 분리된 학풍을 통합 지양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는 신희 당시와 대비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와 같은 시대, 비슷한 활동을 했던 소위 漢文四大家 가운데 나머지 세 인물과도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李廷龜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르는 실용의 글을 쓰는데에 치중했고 거기에서 산문의 가치를 발견했다.³⁹⁾ 그리고 李植은 실용과 함께 기존의 이념을 고집하는 데서 산문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⁴⁰⁾ 장유는 산문을 통해서 실용적 목적이나,⁴¹⁾ 사교의 확대를 이루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⁴²⁾ 같은 漢文四大家의 일원이면서도 신희는 시대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달리했다. 산문을 통해서 외교와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것이 산문의 유일한 기능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신희는 우선 시급한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더 근본적인 문제에 착안 할 수 있었다. 李廷龜와 같이 현실에만 치중하거나, 李植과 같이 단순히 앞 시대의 사상을 고집하거나, 張維와 같이 사유의 폭을 넓히는 그 자체만으로는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희는 한편 시급한 현실에 대응하면서 그 現實 裏面의 근본 문제인 사상과 문학의 본질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산문을 집필했다. 그 결과 신희는 나머지 세 인물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비평론과 사상론이라는 체계적인 논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신희는 현실에 대한 현실적, 직접적인 대응과 현실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대응을 동시에 전개함으로써 가장 완벽한 문학활동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희가 산문을 통해서 시대의 현실적 문제인 정치, 경제, 이념 등⁴³⁾

39) 李廷龜, 『月沙集』(韓國文集叢刊 69) 參照.

40) 李植, 『澤堂集』(韓國文集叢刊 68) 參照.

41) 張維, 『谿谷集』(韓國文集叢刊 92) 參照.

42) 鄭然峰, “張維 詩文學 研究—莊子の 天機論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國文科 博士學位論文, 1989. 12. 165쪽.

43) 申欽은 “雜著二”에서 ‘治亂篇, 民心篇, 權臣篇, 士習篇, 財用篇, 用兵篇, 立本篇, 愼分篇, 去蔽篇, 覈僞篇’ 등의 여러 당면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에 대하여도 많은 논의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득권의 옹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저술의 내용을 볼 때 신희의 산문은 집권층의 내적 자기 변화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신희가 제시한 문제와 해결 방법은 뒷 날 사회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 학문을 했던 실학의 연원이 될만 한 것이기도 하다. 실학적인 면모가 율곡에서 막연하게 보였던 것이 신희에 와서 좀더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⁴⁾

다음은 그의 문예의식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申欽은 現實과 道와의 관계에서 산문의 가치를 발견했다. 산문을 통하여 객관적 현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며, 그 내용을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道와의 관계에서는 시대에 걸맞는 道를 찾아내고 이를 역시 후세에 전하는 데에 산문이 크게 기여한다고 보았다. 道를 모색하되 신희는 기존 이념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현실을 근거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상적 상태의 道를 찾아내려 했다. 신희는 가장 이상적인 道는 당면 현실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당면 현실은 이상적인 道를 구현해야 가치있다는, 양자의 不可分離性을 말했다. 그래서 그는 양자가 일치된 상황을 지향했다. 신희는 現實 속에 道가 있고 道 안에서 現實이 전개되는 세계를 이상적인 상황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희는 道의 개념을 현실적,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道와 散文의 관계에서 신희는 貫道論을 주장했다.⁴⁵⁾ 결국 申欽의 文藝意識은 시와의 관계에서는 清氣論⁴⁶⁾, 산문과의 관계에서는 貫道論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散文意識은 그 자신의 詩論과의 관계에서 그의 전체 文藝意識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된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는 청기론적 詩意識에서 주관적 감성의 眞理(道)를 중시했다면, 관도론적 散文意識에서는 객관적 事像의 眞理(道)를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주관과 객관이라는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자연스러움, 현실성, 개방성이라는 성향을 공통인자로 함축하여 두 이론의 기초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인자를 근거로 산문의식은 시의식과 조화하고, 나아가 객관의 事像과 道를 나타내는 데에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 그의 관도론적 문예의식은 詞章派와 士林派의 편향된 속성을 어느 정도 극복한 의의를 지닌다. 당면한 현실의 외교적 목적이나 기득권을 지키

44) 신희와 실학의 관계는 더 깊은 천착을 요한다. 신희의 실학적인 면모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몇 가지 들어 볼 수 있다. 그가 율곡 계통의 기호사림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실학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이수광이 신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희 자신이 현실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시도했고 실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현실 개혁의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45) 앞의 '3章'과 註 35)番의 內容을 參照.

46) 全在康, "앞의 論文" 146~173쪽.

지 위하여 꾸밈을 중시하던 사장과에 대하여 道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문장을 道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사림파에 대하여 산문의 현실적 중요성을 일깨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중요성은 외교적 목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⁴⁷⁾

그리고 그의 문예 의식은 당시 古文論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보여 준다. 지금까지 崔岵, 尹根壽 등의 인사를 모두 秦漢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擬古文派로 보는 과정에 신흠도 그 일원인 것처럼 논의되었다. 그러나 신흠은 山水가 각기 다르면서 같듯이 詩文도 개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 일방적 모방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⁴⁸⁾ 그래서 典古를 인용해도 신흠은 그 자신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했지 맹목적 모방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당대의 현실을 개성있는 글로 나타냈을 때 진정한 고문이 된다는 古文精神을 신흠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典古引用의 擬古文 方式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時文을 쓰고자 했던 신흠은 唐宋古文的 한계까지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신흠은 詞章, 士林派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듯이 擬古, 唐宋古文派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장점을 취해왔다. 즉 신흠의 문예의식은 두 古文論의 圖式을 극복한 의의를 하나 더 갖는다고 할 수 있다.

V. 結 論

지금까지 신흠의 산문의 존재 양상과 문예 의식, 그 의의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그러나 이 논의는 개괄적인 성격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의 논의는 신흠의 각 산문 작품이 가진 형식, 내용,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세밀하게 천착하는 데까지 나아가 하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구체적 논의의 앞 단계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신흠이 남긴 문은 매우 다양한데, 그 집필 동기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의 존재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書, 表, 箋 등의 글을 집필했고, 덕망을 기리고 윤리적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墓誌銘, 傳, 篇 등의 글을 썼다. 그리고 과거 역사와 당대의 역사 현실을 논의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言, 錄, 志 등의 글을 지었고, 문학을 논의하기 위하여 序, 跋, 談 등의 글을 지었다. 더 나아가 학문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錄, 說, 篇 등의 글을

47) 앞의 '3章. 文藝意識의 特性' 部分의 內容 參照.

48) 人心不同如面 詩文由乎人心 而發又惡同哉 而今世之人 責唐曰胡不漢也 責宋曰 胡不唐也 或有一言之幾於古 則必自標置 曰吾文漢也 吾詩唐也 可謂迂矣 譬之於山水 山有五岳 而形質俱殊 水有九河 而派源各異 然其嶺崇巍岷同也 淪漣澎湃同也 俱不失爲山水也……乃若心齊其萬有不同之形 束之於一概 則造化有所病焉(『象村』 51, “求正錄 上”)

지었다.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에서는 의도적 수식을 일삼았고, 윤리를 말하는 글에서는 중후한 표현을 했고, 역사를 논의한 글에서는 비판적 전거를 많이 끌어왔다. 문학과 학문을 논의한 글에서는 자유로운 논의를 위하여 격식에 매이지 않은 문식을 구현했다.

둘째, 위의 이러한 散文 존재 양상은 근본적으로는 現實과 道에 연관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외교와 윤리, 역사 등의 문제가 현실에, 문학과 학문의 문제가 도에 관계된 것이었다. 현실의 합리적 이해, 변화, 그 전달에 있어 문이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고, 도에 대한 객관적 사유와 창조, 그 전달에 문이 절대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당면적 현실을 이상적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인 도를 모색하는 데에 散文이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셋째, 위 두 측면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들 수 있다. 먼저 산문 존재양상이 갖는 의의는 그 선대와 당대, 후대 인물과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선대 사상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거정, 사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율곡과 대비했을 때 신흠은 외교에 필요한 현실적인 글, 문예이론의 체계를 세우는 글, 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산문을 동시에 남겨 편향성을 극복했다. 그리고 신흠은 당대의 李廷龜, 李植, 張維 등과 대비했을 때 이들과 달리 현실 대응의 다양한 방법을 두루 산문을 통해서 모색했다는 것이다. 신흠은 時事에 필요한 직접적 글은 물론 文藝와 道에 대하여 논의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긴 散文을 남겨 나머지 三人에 비하여 가장 깊이 있는 현실 대응의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산문 기술은 散文 文學을 더욱 강화했던 조선 후기 실학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을 남겼다.

산문에 대한 신흠의 이러한 의식이 갖는 의의는 우선 그 자신의 청기론적 시론과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청기론에서 주관적 감성의 진리(道)를 중시했다면, 관도론에서는 객관적 事像의 진리(道)를 중시함으로써, 신흠은 그 자신의 전체 문예의식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즉 관도론적 산문의식은 그의 청기론적 시의식과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신흠이 산문의 가치를 깊이 의식한 데에 그 전대 관인의 면모를 수행했으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신흠은 전대의 관인처럼 산문을 통하여 자기를 과시하고,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았다. 신흠은 개인과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산문을 저술했고 바로 거기에 산문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수식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자기 과시에 빠져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전대 사림이 중요시했던 道를 또 하나의 과제로 가져왔다는 점이다. 신흠은 여기에서 당면 현실의 위기를 구제하고자 항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림의 관념적, 사변적 이념이 그대로 時事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를 세우고자 했다. 결국 신흠은 문을 통하여 당대의 사문난적이라 할

수 있는 도, 불, 양명학 등을 두루 섭렵하여 실천적이고 초월적인, 즉 進退溪, 治亂의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념을 수립했다. 도를 중요시했지만 道의 의미를 확대시켰고 散文의 가치를 道와 대등할 정도로 높게 인식한 것 이점이 바로 조선 전기의 사림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런 貫道의 文藝意識은 고문론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보여준다. 秦漢古文, 唐宋古文派 양쪽의 장점을 취하여 모방과 답습의 문풍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과제는 신흠의 전체 산문을 여러 하위 갈래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위 갈래에 나타난 역사의식, 현실의식, 사상 등은 물론 그 문체의 특성을 밝혀 신흠문학의 총체적 성격을 규명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신흠문학을 다른 사회 소속 계층이나, 학문적 계통의 인물과 대비하거나, 통시적으로 신흠선후대의 문학과 대비 연구함으로써 그 당대 혹은 조선 중기 전체 문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 金宗直, 佔畢齋集, 韓國文集叢刊, 12.
 徐居正, 四佳集, 韓國文集叢刊, 10~11.
 申 欽, 國譯 象村集 4~5, 古典國譯叢書 254~255, 民族文化推進會.
 申 欽, 象村集, 韓國文獻研究會 影印, 1981.
 李 珥,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44~45.
 李 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
 李廷龜, 月沙集, 韓國文集叢刊, 69~70.
 張 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李晔光, 芝峰集, 서울 文淵閣 影印, 1989.
 權五雄, “象村의 主神의 文學論 研究—그의 易思想과 관련하여—” 「漢文學研究」 第5輯 啓明大 漢文學研究會, 1988.
 金榮淑, “象村과 瓶窩의 樂府 研究” 「語文學」 第46輯, 韓國語文學會, 1985.
 ———, “象村의 中國樂府 受容樣相” 「論文集」 第4輯, 大丘韓醫大, 1986.
 金益洙, “朱子와 退溪의 易學思想研究” 建國大學校大學院 哲學博士 學位論文, 1987.
 金周伯, “象村詩의 葛藤과 歸去來 樣想” 「漢文學論集」 第4輯, 檀國大漢文學會, 1986.
 ———, “象村樂府詩考” 「漢文學論集」 第3輯, 檀國大 漢文學會, 1985.
 ———, “申象村 樂府詩研究” 檀國大 漢文科 碩士論文, 1984.

- _____, “申象村의 詞文學 研究” 「漢文學論集」 第6輯, 同學會, 1988.
- 슈즈스키 지음, 오진탁 옮김, 「주역연구」 훈겨레비평총서 27, 도서출판 훈겨레, 1988.
- 朴乙洙, “申欽論” 「古時調作家論」 韓國時調學會 編, 1986.
- 申東哲, “象村文學研究－특히 時調를 中心으로－” 慶北大 碩士論文, 1969.
- 禹應順, “申欽의 文學論 研究” 「語文論集」 第28輯, 高麗大 國文學研究會, 1989.
- _____, “朝鮮中期的 四大家의 文學論”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0.
- 尹南漢, “「象村先生集」 解題” 「國學資料」 第27號, 藏書閣, 1977.
- 李圭春, “象村詩話研究” 忠南大 碩士學位論文, 1987.
- _____, “象村申欽의 批評意識 點檢” 「東方古典文學研究」 鶴山趙鐘業博士華甲記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90.
- 全在康, “象村의 經學 思想과 文學論” 「語文學」 第53輯, 語文學研究會, 1992.
- _____, “申欽詩의 構造와 批評研究”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92.
- 趙潤濟, “申象村의 朝鮮 詩歌觀” 「東亞日報」 1936. 1. 2일자.
- 崔 雄, “象村時調研究” 「韓國詩歌文學研究」 新丘文化社, 1983.
- _____, “申欽의 文學觀에 對하여” 「韓國古典散文研究」 同和文化社, 1981.
- _____, “漢文四大家의 文學論” 「人文學研究」 第 21輯, 江原大, 1985.
- 정병욱, “신상촌의 시조론－「방옹시여서에 대하여－” 「새한글소식」 제93호, 한글학회, 1980.